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K-IDEA) 타당화

김 대 희

김 명 식[†]

전주대학교 / 박사수료생

전주대학교 / 교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Korean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K-IDEA)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진입기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했고, 18-2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를 실시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3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표본 1)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개 요인(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이 산출되었다. 둘째,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00명(표본 2)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통해 구성타당도의 적절함이 검증되었고, 요인 간 수렴 및 변별타당도의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목표중심 자기조절 척도, 정신적 웰빙 척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와 대인관계 행동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어 동시타당도의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 교신저자 : 김명식,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063-220-2035, E-mail: klb2000@jj.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rikson(1950)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심리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시기들의 연속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시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시기의 고유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은 정체성(identity)이며, 성인기의 발달과업은 친밀감(intimacy)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청소년은 성인으로 이행하면서, 안정된 자아개념을 토대로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을 성취하고자 한다. 반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 청소년은 역할 혼미(role confusion)를 경험하고, 친밀감을 성취하지 못한 성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isolation)을 경험한다. 이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결혼, 부모되기(parenthood), 안정된 직업 등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확인하는 전통적인 지표로서 인식되어 왔다(Arnett, 2000).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가 성인기 이행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양질의 직업이나 고소득을 위해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인’으로서 인정받거나 느껴지는 연령이 지연되었기 때문이었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15; 이숙정, 2022; Arnett, 2000; Smith-Adcock & Tucker, 2023). 직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20대 전반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인되어 왔으며(김은정, 2022; 윤미설, 이동형, 2017; Arnett, 2015; Côté, 2014), 이로 인해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로 늦춰진다고 보고되었다(노혜진, 2018; Arnett, 2015, 2016).

성인기 이행의 지연을 설명하기 위해, Arnett(2003, 2016)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성인진입기에

요구되는 일곱 가지의 발달과업(criteria: 준거)을 제시하였다. 첫째, 독립(independence)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자기중심적 성향의 감소 및 타인과의 성숙한 관계를 맺기를 의미한다. 셋째, 역할이행(role transition)은 초기 성인기의 발달과업으로 여겨졌던 결혼, 취업과 출산 등의 객관적 지표의 달성을 의미한다. 넷째, 규범준수(norm compliance)는 사회 규범을 따르는, 충동적이지 않는 조절된 행동을 의미한다. 다섯째, 생물학적 이행(biological transitions)은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물학적 성장과 능력을 의미한다. 여섯째, 연대기적 이행(chronological transitions)은 성인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나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가족 부양능력(family capacities)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 있게 지속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로써 성인기로의 이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제시되었고, 해당 준거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론되었다(Arnett, 2016).

성인으로 “출현(emerging)”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Arnett(2004)은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possibilities), 부정성/불안정(negativity/instability), 자기초점(self-focus)과 끼어있는 느낌(feeling in between)]. 정체성 탐색은 후기 청소년기로부터 지연된(prolonged) 정체감 탐색으로서 사랑, 일과 주변 세계에 대해 다양한 선택과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가능성은 결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위험이나 실패보다는 낙천적 희망과 가능성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성/불안정은 대인관계와 진로 결정과 관

련하여 심리적 불안정과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초점은 부모에게 의지하면서도 독립생활을 위한 지식, 기술과 자기관리와 판단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끼어있는 느낌은 부모의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 받지만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애매한 심리적 과도기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의미한다(Benetsky, et al., 2015). 이와 같은 성인진입기의 특징은 청소년기로부터 이어진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반영하면서도, 성인기로의 지연된 이행으로 경험하는 불안을 반영한다. 즉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자율적인 선택을 반복하고, 자신의 선택들에 책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가적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Reifman 외(2007)는 성인기로의 진입 경험에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심리 사회적 발달의 관점에서 성인진입기의 특징을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성인진입기의 각 특징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성인진입기 척도가 개발 및 타당화되었으며, 취업 및 결혼과 관련된 “타인초점”이 성인진입기의 주요 특징으로 추가되었다. 타인초점(other-focus)은 자신에 대한 평가나 판단만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이나 의견을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성인진입기의 하위요인으로서 정체성 탐색, 실험/가능성, 부정성/불안정, 자기초점, 타인초점, 끼어있는 느낌이 최종 확인되었다(Arnett, 2016).

성인진입기 척도(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 Reifman et al., 2007)가 개발되고난 후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Reifman, 2023). 전반적인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국가, 민족,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Arnett et al., 2014; Baggio et al., 2014; Crocetti et al., 2015; Kuang et al., 2023).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18-21세 958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정체성 탐색 요인이 자기감(sense of self)과 미래 자기(future self)라는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 끼어있는 느낌 요인은 산출되지 않았으며, 산출된 각 요인의 신뢰도는 .60 이상이였다(Nelson et al., 2015). 또한 네덜란드 내 민족마다 요인이 다르게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화마다 성인진입기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Arnett, 2016). 그리스에서는 592명의 18-30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정체성 탐색/끼어있는 느낌, 실험/가능성/자기초점, 부정성/불안정의 세 개 요인이 보고되었는데, 각 요인의 신뢰도는 .67 이상이였다. 이 결과는 오랜 경제 위기와 같은 사회적 어려움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Leontopoulou et al., 2016), 국가나 사회 내 경험에 따라 성인진입기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이 실증되었다(Arnett, 2016). 중국에서는 18-29세의 대학생과 직장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Kuang et al., 2023), 타인초점과 자기초점의 문항의 각 일부가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요인으로 묶였다. 이 요인은 독립하여 정착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를 책임지는 것이면서 자기 만족(self-sufficient)이라고 인식하는 중국 특유의 집단주의와 유교 문화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중국 연구에서 끼어있는 느낌 요인은 산출되지 않았고, 각 척도의 신뢰도는 .77 이상이였다. 일본 연구(Crocetti et al., 2015)에서는 18-30세의 대학생과 직장인 95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타인초점

요인을 제외하고 5개 요인이 다른 연구들과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는 .80 이상이였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결과는 비슷한 문화권 내에서도 성인진입기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Arnett, 2016).

Reifman 외(2007)는 성인진입기 척도의 하위요인의 동시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자기숙달(self-mastery), 새로움 추구(novelty-seeking), 미래 지향(future orientation),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 부모의 통제(parental control)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각 변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탐색하고 실행하면서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처해야만 하는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과 연관되는 것들이다(Arnett, 2000, 2003, 2014, 2016). 정체성 탐색 요인은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 미래 지향(future orientation)과 정적상관, 부모의 통제(parental control)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있으며,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성취하려는 미래 지향적 행동의 증가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험/가능성 요인과 자기초점 요인은 미래지향과 정적상관, 부모의 통제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성인진입기가 현재를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독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동의 증가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Reifman & Lacey, 2000). 셋째, 부정성/불안정 요인은 삶의 만족, 자기 숙달과 가능한 자기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성인진입기가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내적 통제감과 자기 확신의 결여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Marshall & Lang, 1990; Pearlin &

Schooler, 1978). 넷째, 성인진입기 중 타인초점 요인은 삶의 만족과 미래 지향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성인진입기의 타인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삶에 대한 만족과 연관되며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과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Cross & Markus, 1991; Pavot & Diener, 1993; Reifman & Lacey, 2000). 다섯째, 성인진입기 하위요인 중 끼어있는 느낌은 동시타당도를 위한 어떤 개념과도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선행연구(Reifman et al., 2007)에서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은 국내에서 번안되지 않았거나 타당화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Reifman et al., 2007)의 척도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영역을 측정한다고 연구자에 의해 판단된 국내의 공인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삶의 만족(Pavot & Diener, 1993)은 본 연구의 정신적 웰빙 척도(임영진 외, 2012)를 통해 측정되었다. 정신적 웰빙 척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이 삶의 만족을 전반적으로 측정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자기숙달(Marshall & Lang, 1990; Pearlin & Schooler, 1978)과 새로움 추구(Arnett, 1994)는 본 연구의 목표 중심 자기조절 척도(원성두 외, 2015)의 하위요인 중 목표실행이 자기숙달과 관련이 있고, 정서조절이 새로움 추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미래 지향(Reifman & Lacey, 2000)은 본 연구의 미래지향 척도(윤소정, 김정섭, 2012; Zimbardo & Boyd, 1999)를 통해 측정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의 가능한 자기(Cross & Markus, 1991)는 본 연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김은하 외, 2017)를 통해 측정되었다. 가능한 자기는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 척도의 하위요인 중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관계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양은정, 심은정, 2020). 이 믿음이 강할수록 부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차란희, 노안영; 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크게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개인적 믿음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경험을 덜 느끼고 심리적 안녕감을 느낀다. 반면, 일반적 믿음이 높을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를 갖는다(김은하, 정보현, 2018; 양난미 외, 2021). 선행연구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본 연구의 한국판 기본 심리적 욕구에 기반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류지영 외, 2020)를 통해 측정되었다. 대인관계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좌절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되는 좌절과 관계있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진입기 척도가 타당화 되면서, 해외에서는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을 검증하기 위해 정서조절, 자기개념, 정체성 및 성격 발달,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정서적 독립과 관련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었다(Bleidorn & Schwaba, 2017; Hill et al., 2015; Peterson et al., 2016; Reed-Fitzke, 2020; Shulman & Nurmi, 2010; Skaletz & Seiffge-Krenke, 2010). 이 연구들에 따르면, 성인진입기는 정체성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자 한다. 자기개념은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삶의 목표를 매개로 하여 미래 지향적인 행동을 지속 시키기도 한다. 또한 정체성 탐색과 관련된

성공적 경험은 성인진입기에게 내적 통제감을 준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안정감을 얻은 성인진입기 청년은 사회적인 관심을 쏟는 것을 비교적 수월하게 느끼면서 대인관계에서 유능성을 경험한다(Côté, 2014; Kraus et al., 2012). 반면, 정체성 탐색 시 경험된 부정적 자기개념과 삶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성인진입기의 정서 조절과 진로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정서 조절, 정체성 탐색, 독립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한편, 성인진입기는 사회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질 남용 등의 행동 조절 문제에 취약해지기도 한다(Arnett, 2016).

국내에서도 성인진입기와 관련된 유사한 연구가 시도되었다(김은정, 2022; 정은교, 안도희, 2018; 차란희, 노안영, 2020). 국내 성인진입기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정체성 탐색에 필수적이라고 느끼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김은정, 2015; 이숙정, 2022).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미래에 대한 도전과 탐색을 위한 안정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정체성 탐색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인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Côté, 2014). 이 결과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정체성 탐색의 일부로 이해하는 원칙도(Reifman et al., 2007)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기를 어려워하였는데, 경제적 독립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22). 즉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독립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로 경험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성인기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는 서구권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Arnett, 2016). 아시아권 사람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김은정, 2015),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성인기의 준거로 본다(Arnett, 2016).

국내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문제는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장희순, 2020; 최은경, 임정하, 2022). 독립하려는 자녀의 존재는 정서적으로 덜 분화된 기존의 가족 체계에 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독립에 방어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고(김대희, 김명식, 2021),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자녀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여러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김유숙, 2022). 또한 아동기부터 경험된 정서 및 애착 문제는 성인진입기의 성격문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태연, 남지은, 2022; 서지효, 장혜인, 2021).

국내에서는 성인진입기의 진로적응성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진로적응성이란 당면한 진로 과업이나 직업의 변화에 대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성인진입기의 진로적응성은 자율성(최서경 외, 2019), 그릿(진예민 외,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정은교, 안도희, 2018)과 같이 내적 통제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성인진입기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 12-24세)와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5-45세)의 진로발달을 경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8). 그러나 성인진입

기는 청소년기로부터 연장된 정체성 탐색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구체화된 진로를 결정하거나 특정 직업에 정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Arnett, 2015). 따라서 국내에서 성인진입기는 아직 진로 탐색기에 가깝게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과정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8).

성인진입기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과정이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성인진입기의 여섯 가지 요인 중 부정성/불안정과 같은 요인은 국가마다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한국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탐색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와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를 변안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윤리적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참여자들에게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는 웹 기반의 모아폼(moaform)으로 제작되었고, IP 제한으로 중복 참여를 막았다. 설문지는 (예비)직장인, (예비)대학생, (예비)대학원생들이 자신들의 생활방식, 문화공간, 학업 및 취업 정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플랫폼(다음 및 네이버 등)을 통해 배포되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다층 표본 추출을 시행하였으나 지역

은 고려하지 않았다. 연령을 정확하게 표집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즉 설문지가 배포된 각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의 운영자와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운영자의 도움을 받아 참여자의 연령을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웹 설문지에 입장할 수 없게 하였는데, 참여자의 생년월일이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5분이었다. 수집된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는 보상이 지급된 후 즉각 파기되었다. 본 연구자가 소속된 교육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번호는 jIRB-230320-HR-2023-0203이었다.

Arnett(2000)은 후기 산업 사회를 중심으로 오랜 교육 기간과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 때문에 전통적 성인됨(취업, 결혼, 출산)의 연령대가 미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의 성인진입기와 관련된 초기 연구에서는 대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18-25세를 성인진입기로 간주하였다(Arnett, 2000).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취업 시장에서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고등 교육을 지속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Arnett 외(2014)는 성인기 이행(취업, 결혼, 출산)을 위한 준비 기간이 20대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므로 18-29세를 중심으로 성인진입기를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Reifman 외(2007)는 성인진입기의 주요 특징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8-29세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관찰된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2세, 여자 31.26세이며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36세라고 보고되었다(통계청, 2021, 2022a). 또한 국내 20-29세 성인의 약 80%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b).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취업, 결혼, 출산 전의 시기를 성인진입기, 즉 성인기로의 이행으로 보았고 특히 원칙도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18-29세의 남녀로 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된 참여자는 342명이었다. 무응답이 있고, 질문에 응답한 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4분 미만) 너무 오래 진행했다(20분 이상)고 판단되는 42명의 설문을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는 만 18-29세 성인으로 총 300명이었다. 남성 87명(29.0%), 여성 213명(71.0%)이었고, 연령의 평균(표준편차)은 24.31(2.73)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3세가 125명(41.7%)이었고, 24세에서 29세가 175명(58.3%)이었다. 안정적인 관계로 연인을 답한 수가 148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는 13명(4.3%), 모두 없다고 답한 수는 139명(46.3%)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1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139명(46.3%), 대학원 졸업이 10명(3.3%)으로 가장 적었다. 업무의 형태는 학생(경제활동 하지 않음)이 121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이 89명(29.7%), 무직/취업준비/실업이 68명(22.7%), 일용직/임시직이 19명(6.3%), 자영업/고용주가 3명(1.0%) 순이었다. 부모(양육자)의 경제적 도움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평균은 2.83, 표준편차가 .98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된 참여자는 226명이었다. 무응답이 있고, 질문에 응답한 시간이 짧거나(4분 미만) 오래 진행했다(20분 이상)고 판단되는 26명의 설문을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는 만 18-29세 성인으로 총 200명이었다. 남성 61명(30.5%), 여성 139명(69.5%)이었고, 연령의 평균(표준편차)은 24.18(2.78)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3세가 89명(44.5%)이었고, 24세에서 29세가 111명(55.5%)이었다. 안정적 관계에 관한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한 수가 11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연인은 71명(35.5%), 부부는 10명(5.0%) 순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0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은 90명(45.0%), 대학원 졸업은 10명(5.0%) 순이었다. 업무의 형태는 학생(경제활동 하지 않음)이 97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이 48명(24.0%), 일용직/임시직이 26명(13.0%), 무직/취업준비/실업이 25명(12.5%), 자영업/고용주가 4명(2.0%) 순이었다. 부모(양육자)의 경제적 도움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평균(표준편차)은 2.83(.96)이었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척도(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의 원저자인 Reifman으로부터 번안 및 타당화 연구를 허락받고 진행되었다. 제안된 국제지침(서동기, 이순목, 2017)에 따라 언어만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도 익숙한 두 명의 이중언어 구사자(10년 이상, 영미권 국가에서 20대를 보냈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의 도움을 받아 번역과 역번역을 각각 실시했다. 이는 각 문항에 내재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언어적/문화적 거리를 좁히고, 안면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원척도가 측정하고자 했던 심리학적 구인을 타당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최종 번역된 내용에 대하여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생 1명과 임상심리학 박사 1명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성인진입기 한국판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4점: 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했으며, 설문지의 간결성을 위해 질문 형식인 원척도와 다르게 평서문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설문제에 관한 번역된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인생에서 요즘은 어떤 시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기란 현재와 지나간 과거의 몇 년간을 의미하며 예상되는 몇 년간의 미래를 포함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를 중심으로 대략 5년의 앞뒤 기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원척도 연구(Reifman et al., 2007)를 참고하여 성별,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사람, 연령 별로 균등하게 표집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표집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웹 기반 설문지의 특성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균등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외에 안정적 관계, 학력, 직업 형태, 부모에게 받는 경제적 도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거주지 독립에 관한 항목은 최종 설문지에서 삭제하였다. 해외 연구에서는 거주지 독립이 부모와의 정서적 문제를 감소시키고(Aquilino, 2006; Arnett & Schwab, 2012, 2013; Fingerma & Yahirun, 2015), 자녀를 독립적 개체로 인정해주는 부모와의 동거는 안정감을 준다고 보고하였다(Arnett, 2015; Arnett & Schwab, 2013). 그러나 국내의 성인기 이행은 거주지 독립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다(김은정, 2015, 2022).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자

녀 관계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거주 독립이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강주현, 2017; 김태연, 남지은, 2022). 또한 국내 20-29세 성인의 약 80%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b).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서 거주 독립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국내의 성인진입기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것이라 판단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각각의 참여자는 일주일 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모집되었다. 하나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참여자 중복을 막기 위해서 IP 및 쿠키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동일 기기의 동일 브라우저, 또는 같은 IP주소에서 한 번만 답변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기 위해 각 참여자가 설문지 작성을 시작하고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을 참고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과 길이를 고려할 때 설문지에 답한 시간이 4분 미만이거나 20분 이상인 경우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어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최종 참여자는 만 18-29세 성인 300명이었다. Cohen(1988), Westland(2010), Soper(2023)의 제안을 따라 효과 크기(.3), 검정력(.8), 잠재변수(6개 변수), 관측 변수(31개), 유의확률(.05)을 고려할 때 구조방정식 검증을 위한 최소 161명이 충족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최종 참여자는 전국의 만 18-29세 성인 200명이었다. 이로써 동시 타당도 검증을 위한 최소 138명이 충족되었다(김청택, 2018; 서원진 외, 2018; 장승민,

2015). 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은 SPSS 26과 AMOS 26로 진행되었으며, 평행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Jamovi 2.3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목표중심 자기조절 척도

원성두 외(2015)는 대학생 표본에서 최종 문항을 도출하고, 대학생 및 일반인 표본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는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지향,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 실행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828, .880, .849, .755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46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807, .873, .896, .84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75이었다.

정신적 웰빙 척도

Keyes(2002, 2003)의 행복 이론이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제시한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 Keyes et al., 2008)를 번안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임영진 외, 2012).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0점: 전혀 없음 ~ 5점: 매일)로 총 14문항이며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88, .81, .9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임영진 외, 2012).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의 신뢰도

는 .89, .82, .9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김은하 외(2017)는 Lucas 등(2007)이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World Belief Scale; PDJWBS)을 번안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배/절차공정성과 개인적/일반적인 믿음의 두 축의 조합으로 4개의 하위요인(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순서대로 .83, .84, .90, .88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0이었다(김은하 외, 2017).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6, .89, .92, .9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4였다.

대인관계 행동 척도

류지영 외(2020)는 Rocchi 외(2017)가 개발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를 번안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지를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토대로 지지와 좌절 영역을 나눠 측정한다. 6개의 하위요인(자율성-지지, 자율성-좌절, 유능감-지지, 유능감-좌절, 관계성-지지, 관계성-좌절)로 구성된 총 24문항으로 7점 척도로 응답한다(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자율성-좌절이 .87, 유능감-좌절이 .87, 관계성-좌절이 .82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3이었다(류지영 외, 2020).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94, .94, .92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5였다.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윤소정과 김정섭(2012)은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한 ZTPI(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를 번안하였고 5요인(과거 부정적 시간관, 과거 긍정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 현재 운명적 시간관, 미래 지향적 시간관)으로 구성된 30문항을 확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부정적 내용의 항목은 역채점 된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미래 지향적 시간관의 신뢰도는 .74이었고(윤소정, 김정섭, 2012),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82이었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총 31개 문항의 번안된 성인진입기 척도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절대값 7이 초과되면 표본의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데 모든 문항이 절대값 1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West et al., 1995). 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KMO 및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자료들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해당 값이 .9 이상이면 좋고, .8 이상이면 양호, .6-.7 이상이면 보통이나 .5 미만이면 부적절하고 판단한다(Kaiser, 1974).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은 .89이고 각 문항의 대부분이 .8 이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다. 문항14, 문항18은 .61로 나타났으나 분석에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었다.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영가설은 수집된 자료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Bartlett, 1950). 본 연구에서는 영가설이 기각($\chi^2=3896.48$, $df=465$, $p<.001$)되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간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사각회전 중 하나인 오블리민(oblimin)을 수행하였고, 공통요인분석 중 하나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요인추출을 시행하였다. 패턴행렬을 통해 요인을 나눈 후, 상관계수가 적용된 구조행렬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Beavers 외(2013)는 문항 제거를 위한 최소 공통성(communality) 수치를 .25-.40으로 제안하였다. 공통성이란 요인에 대한 각 항목의 설명력으로 .40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 제거되는 문항은 없었다. 교차요인부하로 인한 문항 제거 혹은 요인 결정의 기준은 두 요인 이상이 모두 .30이거나 요인 간 차이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었다(서원진 외, 2018). 문항4, 문항5, 문항10, 문항19는 3개 이상의 요인에 교차부하를 보이고, 원척도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요인에 속하였으므로 내용 타당도에서 적절치 않은 요인으로 묶인다고 판단되어 제거되었다. 문항30은 두 요인(정체성 탐색, 끼어있는 느낌)에서 교차부

하가 나타났으나 끼어있는 느낌의 부하량이 더 높았고 원척도에서도 끼어있는 느낌에 속하기 때문에 끼어있는 느낌으로 결정되었다.

요인 수 결정을 위해 아이겐값(eigenvalue, 고유치), 평행분석과 누적분산비율을 사용했다. 유의미한 요인이라면 아이겐값이 1을 넘어야 한다는 Kaiser 규칙(Kaiser, 1960)은 항상 참이라 할 수 없는 역명제(아이겐값이 1을 넘으면 유의미한 요인이다)로 오용되고 있으며, 모집단 기반이라는 문제가 있다(서원진 외, 2016).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겐값의 대체로써 알려진 평행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의미 있는 요인구조라면 무작위자료에서 도출된 것보다 더 큰 아이겐값이 나와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행분석으로 확인된 요인은 5개였다(그림 1, 스크리 도표). 5개 요인의 누적분산비율은 49.32%, 6개 요인은 52.04%로 나왔다. 그러나 요인이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요인에 묶이는 문항의 숫자가 3개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서원진 외, 2018; 장승민, 2015). 그리하여 5개 요인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요인에 관한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검정을 통해 최종 모형을 결정하고, 각 요인별 신뢰도(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김청택(2018)은 요인 개수 선정을 위한 RMSEA값을 .08 미만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37이었으며 신뢰구간은 .029-.045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LI값은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57.33$, $df=320$, $p<.001$). 자세한 결과표를 1에 기술하였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300)

번호	원칙도 (미국)요인	문항	요인				
			1	2	3	4	5
요인 1.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11문항)							
21.	실험/가능성	새롭게 도전해보는 시간이다.	.75	.050	-.060	-.14	.033
16.	실험/가능성	여러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다.	.70	-.073	.045	-.069	.0067
1.	정체성 탐색	많은 것이 가능한 시간이다.	.68	-.15	-.013	.022	.0028
12.	정체성 탐색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다.	.67	-.014	.13	.033	-.033
24.	정체성 탐색	나 자신을 정의하는 시간이다.	.64	.087	-.050	.18	-.050
2.	실험/가능성	탐색하는 시간이다.	.63	.13	-.078	-.11	-.041
27.	정체성 탐색	나의 고유한 신념과 가치를 설정하는 시간이다.	.61	-.0004	.016	.18	.056
26.	정체성 탐색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시간이다.	.60	-.027	.038	.059	.069
25.	정체성 탐색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다.	.57	.065	-.15	.23	.029
22.	자기초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56	.052	.0056	.0054	.066
28.	정체성 탐색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52	-.047	.057	.13	.080
요인 2. 부정성/불안정(7문항)							
11.	부정성/불안정	큰 압박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0013	.82	.027	.17	-.12
8.	부정성/불안정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다.	-.12	.72	-.030	.019	.076
20.	부정성/불안정	걱정이 많은 시간이다.	.086	.70	-.11	.087	.016
9.	부정성/불안정	불안정한 시간이다.	-.048	.61	.016	-.26	.19
6.	부정성/불안정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다.	.082	.59	.11	-.011	.013
3.	부정성/불안정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0067	.57	-.031	-.14	.22
17.	부정성/불안정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23	.51	.15	-.16	.14
요인 3. 타인초점(3문항)							
18.	타인초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시기이다.	.029	.070	.81	-.084	-.034
14.	타인초점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042	-.027	.80	.069	.0095
13.	타인초점	정착하는 시간이다.	.029	-.16	.37	.26	-.10
요인 4. 자기초점(3문항)							
23.	정체성 탐색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간이다.	.083	.034	.14	.59	.57
7.	자기초점	나 자신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20	.12	.16	.52	.15
15.	자기초점	독립의 시간이다.	.058	.089	.0081	.48	-.0067
요인 5. 끼어있는 느낌(3문항)							
31.	끼어있는 느낌	완전히 성인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이다.	.019	-.002	.042	.027	.66
29.	끼어있는 느낌	성인이라 느껴지기도 아니기도 한 시간이다.	-.015	.082	-.089	.040	.59
30.	끼어있는 느낌	절차 성인이 되어가는 시간이다.	.35	-.053	-.091	.13	.38
고유치			6.39	4.18	2.14	2.79	3.23
공통분산							49.32
내적합치도(Cronbach's α)			.89	.87	.72	.67	.69
전체문항 내적합치도							.87
제외된 문항							
4.	실험/가능성	실험적인 시간이다.					
5.	자기초점	개인적 자유가 있는 시간이다.					
10.	자기초점	낙관적인 시간이다.					
19.	자기초점	자급자족하는 시간이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총 4개 문항(4, 5, 10, 19)이 제거된 후, 27개 문항의 성인진입기 척도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모든 문항이 왜도와 첨도에서 절대값 1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West et al., 1995). 항목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각 하위요인인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은 .87, 부정성/불안정은 .85, 타인초점은 .76, 자기초점은 .78, 끼어있는 느낌은 .78이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전체적인 모형 적합도 검정을 위한 RMSEA값은 .067이었으며 신뢰구간은 .058-.075 이어서 본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LI값과 CFI값은 .90 이상을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87이었으므로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SRMR값은 .10 이하를 적절한 기준으로 보는데 본 연구에서 SRMR값은 .080이었으며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92.60$, $df=314$, $p < .001$).

노경섭(2019)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된 상관계수로 구성타당도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통한 검증을 제안하였다. 각 요인의 AVE값이 .5 이상($AVE \geq .5$)일 경우 수렴타당도가 검증되고, 각 요인의 AVE값이 요인 간 상관계수(ρ)의 제곱값보다 모두 크면($AVE > \rho^2$) 변별타당도가 검증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의 AVE값은 .768, 부정성/불안정의 AVE값은 .870, 타인초점의 AVE값은 .859, 자기초점의 AVE값은 .854, 끼어있는 느낌의 AVE값은 .877이었다. 각 요인의 AVE값이 모두 .5 이

상이므로 문항들의 해당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AVE값이 해당 변인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므로 요인들 간의 변별타당도가 보장되었다.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과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계수 제곱(ρ^2)은 각각 .075, .005, .253, .285로 각 요인의 AVE값인 .768, .870, .859, .854, .877보다 작았다. 마찬가지로, 부정성/불안정과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계수 제곱(ρ^2)은 각각 .005, .073으로 각 요인의 AVE값인 .870, .859, .854보다 작았고, 타인초점과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계수 제곱(ρ^2)은 각각 .097, .003으로 각 요인의 AVE값인 .859, .854, .877보다 작았다. 마지막으로, 자기초점과 끼어있는 느낌 간의 상관계수 제곱(ρ^2)은 .108로 각 요인의 AVE값인 .854, .877보다 작았다(표 2).

본 성인진입기 척도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성인진입기 척도와 선행 연구(Reifman et al., 2007)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목표중심 자기조절은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과 정적상관($r=.19$, $p < .01$), 부정성/불안정과 부적상관($r=-.35$, $p < .01$), 타인초점과 정적상관($r=.31$, $p < .01$)을 보였고, 자기초점 및 끼어있는 느낌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신적 웰빙은 정체성 탐색과 정적상관($r=.35$, $p < .01$), 부정성/불안정과 부적상관($r=-.29$, $p < .01$), 타인초점과 정적상관($r=.25$, $p < .01$)을 보였고, 자기초점 및 끼어있는 느낌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정체성 탐색과 정적상관($r=.25$, $p < .01$), 부정성/불안정과 부적상관($r=-.20$, $p < .01$), 타인초점과 정적상관($r=.34$, $p < .01$), 자기초점과 정적상관($r=.20$, $p < .01$)을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관계수, 상관계수 제곱(ρ^2)과 평균분산추출(AVE) (N=200)

하위요인	1	2	3	4	5	AVE
1.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1					.768
2. 부정성/불안정(ρ^2)	.273 ^{**} (.075)	1				.870
3. 타인초점(ρ^2)	.068(.005)	.079(.006)	1			.859
4. 자기초점(ρ^2)	.503 ^{***} (.253)	.274 ^{***} (.073)	.311 ^{***} (.097)	1		.854
5. 끼어있는 느낌(ρ^2)	.534 ^{***} (.285)	.488 ^{***} (.238)	.051(.003)	.330 ^{***} (.108)	1	.877

** $p < .01$ *** $p < .001$

표 3. 성인진입기 요인과 준거 변인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N=200)

변인 및 하위요인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 /불안정	타인 초점	자기 초점	끼어있는 느낌
목표중심 자기조절	.19 [*]	-.35 ^{**}	.31 ^{**}	.12	-.13
목표 지향	.32 ^{**}	-.15 [*]	.22 ^{**}	.30 ^{**}	.010
긍정적 사고	.18 [*]	-.25 ^{**}	.24 ^{**}	.075	-.021
정서 조절	.14 [*]	-.27 ^{**}	.34 ^{**}	.040	-.11
목표 실행	-.047	-.32 ^{**}	.096	-.025	-.24 ^{**}
정신적 웰빙	.35 ^{**}	-.29 ^{**}	.25 ^{**}	.10	.025
정서적 웰빙	.32 ^{**}	-.25 ^{**}	.15 [*]	.036	.043
사회적 웰빙	.32 ^{**}	-.27 ^{**}	.33 ^{**}	.13	.000
심리적 웰빙	.33 ^{**}	-.27 ^{**}	.19 ^{**}	.080	.034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25 ^{**}	-.20 ^{**}	.34 ^{**}	.20 ^{**}	.023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28 ^{**}	-.14 [*]	.16 [*]	.17 [*]	.11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27 ^{**}	-.072	.14 [*]	.15 [*]	.08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18 [*]	-.23 ^{**}	.40 ^{**}	.20 ^{**}	-.090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16 [*]	-.20 ^{**}	.41 ^{**}	.16 [*]	.003
부모(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	-.13	.10	.28 ^{**}	-.044	-.010
자율성-좌절	-.077	.13	.18 [*]	-.003	-.020
유능성-좌절	-.15 [*]	.082	.30 ^{**}	-.073	.017
관계성-좌절	-.11	.062	.25 ^{**}	-.043	-.024
미래 지향적 시간관	.18 [*]	-.23 ^{**}	.31 ^{**}	.24 ^{**}	-.067

* $p < .05$; ** $p < .01$

보였으나 끼어있는 느낌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는 타인초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상관($r=.28, p<.01$)을 보였다(표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어 온 성인진입기 척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다섯 개의 요인(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 자기초점, 끼어있는 느낌)이 산출되었다. 특히 부정성/불안정, 타인초점과 끼어있는 느낌은 삭제된 항목이 없이 원칙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원칙도에서의 정체성 탐색 요인과 실험/가능성 요인이 합쳐져서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이라 명명되었다. 또한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산출된 상관의 범위는 .19-.35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된 상관의 범위인 .13-.38과 큰 차이가 없어서, 동시타당도 연구 결과가 비교적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Crocetti et al., 2015; Kuang et al., 2023; Leontopoulou et al., 2016; Reifman et al., 2007).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이 합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정체성 형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정(2015)은 한국의 성인기 이행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김은정(2022)과 이숙정(2022)은 성인진입기의 사회계층이 낮을수록(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수록)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의 특징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제약이 많다고 느낄수록 부정성/불안정과 끼어있는 느낌을 주된 특징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독립으로서의 자기초점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자원이 성인진입기 정체성 탐색의 보호요인이라는 선행연구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Côté, 2014). 즉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양육자의 경제적 도움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체성 탐색을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경험하며, 부정성/불안정과 끼어있는 느낌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과 다소 독립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윤미설, 이동형, 2017). 또한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은 목표지향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미래 지향적 시간관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국내의 성인진입기 청년들의 경우 정체성 탐색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목표를 위한 자기조절, 정신적 안정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 믿음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정체성 탐색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 요인은 부모(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유능성과만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r=-.15, p<.05$).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진입기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경제적 도움을 정서적 지지로 인식하며 독립이

후에도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22). 이 결과는, 한국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책임감과 관련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성인진입기의 부정성/불안정 요인은 목표중심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정성/불안정 요인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인 믿음보다 일반적인 믿음과 더 큰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불안정 요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기조절의 어려움과 관련되고, 안정감의 저하와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지각과도 관계있음을 시사한다(Arnett, 2004; Marshall & Lang, 1990). 한편, 정체성 탐색과 가능성은 하위요인 중 목표실행과 유의하지 않았고, 자기초점은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중 목표 지향과 정적상관, 끼어있는 느낌은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하위요인 중 목표 실행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을 위한 자기조절적 행동이 목표를 지향(orientation)하거나 실행(execution)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적 독립을 위한 자기초점은 목표를 지향하는 것과 함께 나타나지만 정체성 혼란을 의미하는 끼어있는 느낌은 목표 실행을 어렵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목표(goal)나 자기개념이 자기조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Shulman & Nurmi, 2010), 목표를 실행하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원성두 외, 2015). 이로써 성인진입기에는 정체성 혼란과 함께 목표 실행의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과 배려가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셋째, 성인진입기의 타인초점 요인은 목표중심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들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중 개인적인 믿음보다 일반적인 믿음과 더 큰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타인초점이 상호의존과 같은 발달과업의 성취와 성숙한 성인됨의 지표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자기조절의 증가, 정신적 안정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관계 깊음을 시사하였다(Arnett, 2004, 2016; Reifman et al., 2007). 타인초점이 성인진입기의 발달과업(독립, 상호의존, 역할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Arnett, 2004), 즉 타인초점에 높게 응답한 참여자일수록 성인기 이행을 안정적으로 경험하면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 또한 타인초점은 성인진입기의 자기초점 요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타인초점과 자기초점이 성인진입기의 발달과업(독립, 상호의존, 역할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Arnett, 2004). 타인초점은 자기초점의 반대 개념으로 제시되었다가 자기초점과 연관된 개념으로 보고되면서 성인진입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주목받았다(Reifman et al., 2007). 그러나 연인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의미하는 서구권과 달리, 한국 성인진입기의 타인초점은 원가족과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한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22). 이로써 국내 성인진입기의 자기초점 요인과 타인초점 요인 간의 높은 상관성은 원칙도(Reifman et al., 2007)의 결과와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국내 성인진입

기의 타인초점이 과도기적 특징이라는 선행연구를 한국적 맥락에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인진입기의 자기초점 요인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성이 환경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초점은 부모(양육자)에게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와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기초점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론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20대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홀로서기의 불안을 견디며 내 삶의 주인 되기”로 경험하고(강주현, 2017), 경제적 안정을 정체성 형성의 핵심으로 보면서 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제적 안정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김은정, 2015). 즉 국내의 성인진입기는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바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려는 양가적 상태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초점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율성과 정서적 의존 사이에 있는 애매한 상태라고 추론할 수 있다(장희순, 2020).

다섯째, 성인진입기의 끼어있는 느낌 요인은 대부분의 변인들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하위요인인 목표실행과 약간의 부적상관만 있었는데 모두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Reifman et al., 2007). 끼어있는 느낌은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심리적 과도기 상태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서 심리적 불편감과 혼란감과 관련이 클 것으로 예측되나(Benetsky et al., 2015), 선행연구들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와의 상관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끼어있는 느낌은

부정성/불안정과 함께 사회경제적 위치와도 관계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은정, 2015; 윤미설, 이동형, 2017). 결국 성인진입기의 끼어있는 느낌은 심리적 불편감이나 고통감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차원의 문제의식이나 인식 정도일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 결과, 성인진입기의 정체성 탐색 요인과 실험/가능성 요인은 외국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았다. 아마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현재의 정체감 탐색과 미래의 가능성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성인진입기의 부정성/불안정 요인은 긍정적 변인과 부적상관, 타인초점 요인과 자기초점 요인은 긍정적 변인과 정적 상관, 성인진입기의 끼어있는 느낌 요인은 긍정적 변인과 약간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일부 결과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성인진입기의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성인기 이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의지하려는 양가적인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15).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척도를 국내 최초로 타당화하고자 시도하였다. Arnett(2000, 2016)이 제시한 성인진입기를 타당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성인진입기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둘째, 연령, 결혼 유무, 사회계층, 취업 유무, 학업 수준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설문함으로써 대학생 대상으로만 편중되었던 기존의

성인진입기 연구를 보다 진전시키려 노력했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11; Côté, 2014). 본 연구를 통해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과 발달과업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징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함께 탐색하였다. 개인적 정신건강과 관련된 준거 변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확인되는 안녕감을 함께 측정하여 국내 성인진입기의 특징을 다각도로 탐색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등을 이용하여 성인진입기의 자기인식 혹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성인진입기의 특징과 연관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Arnett, 2016; Côté, 2014; Kraus et al., 2012). 넷째,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성인진입기에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상황을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원칙도 연구를 참고하면서도, 심리사회적 발달의 관점에서 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당시 타당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성인진입기에 과도기적 상태의 양가적 욕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를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과 성인진입기 인식에 대한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있어, 내담자를 평가하며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을 평가 및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mith-Adcock & Tucker, 2023). 성인진입기의 심리적 특성이 적절히 연구 및 규명된다면, 상담과 심리치료의 효과성 증진과 개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진입기에 있는 국내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심리적 특징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이해와 더불어, 심리학적 개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소개 및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분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되어, 남성의 심리적 상태가 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남성의 표집수는 300명 중 87명(29%),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200명 중 61명(30.5%)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수의 남성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성인진입기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 및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정체성 탐색 요인과 실험/가능성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산출된 반면,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두 요인이 독립된 요인으로서 나타났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므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체성을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의철, 박영신, 2006; 이종한, 박은아, 2010; Arnett, 2016; Damon & Hart, 1982; Damon & Hart, 1988), 실제 연구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체성 탐색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문화권이라도 국가, 민족마다 성인진입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성인진입기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탐색하고,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성인진입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강주현, 2017; 김은정, 2011, 2022; 이숙정, 2022).

셋째, 타인초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

된 심리적 욕구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목표중심 자기조절, 정신적 웰빙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정적상관을 보인 것과 매우 반대되는 모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류지영 외 (2020)는 욕구-좌절이 욕구-지지의 반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 욕구-지지를 함께 확인하여 좀 더 심층적이고 명료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넷째, 부정성/불안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기본 심리적 욕구하고만 상관이 없었다. 성인진입기의 부정성/불안정은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Arnett, 2004, 2016)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강주현(2017)은 성인진입기가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부모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의 욕구-지지가 부정성/불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류지영 외, 2020).

다섯째, 끼어있는 느낌은 대부분의 준거변인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원칙도와 거의 동일한 결과였다(Reifman et al., 2007). 선행연구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나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 향후 성인진입기가 경험하는 “끼어있는” 내적 경험이 정체성 혼란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단순한 인지적 차원의 문제인식이나 지각 등이 아닌지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와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참고문헌

강주현 (2017).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과정에 대한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대희, 김명식 (2021). 20대 성인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51-71.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윤정, 김영빈, 김희수,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이계경, 임은미, 황매향 (2018). 진로상담(2판). 학지사.

김유숙 (2022). 가족상담(4판). 학지사.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 329-372.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김은정 (2022). 아네트의 성인모색기 개념을 중심으로 본 취약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에 대한 연구. 문화와 사회, 30(1), 7-58.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집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김청택 (2018).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남용 문제와 교정. 조사연구, 17(1), 1-29.

- 김태연, 남지은 (2022).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성인진입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2), 577-598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개정증보판). 한빛아카데미.
- 노혜진 (2018). 청년 1 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류지영, 신희천, 김은하 (2020). 한국판 기본심리적 욕구에 기반한 대인관계 행동 척도(IBQ)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03-1224.
- 서동기, 이순목 (2017). 검사 번역/번안을 위한 국제 지침: 한국어판 2017년 2판.
-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서지효, 장혜인 (2021). 아동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대한 지각이 성인진입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우울경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1), 1-19.
- 양난미, 김미경, 이아라, 장지선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연구동향. *인문사회*21, 12(2), 1823-1838.
- 양은정, 심은정 (2020).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잠재프로파일과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7(1), 225-247.
- 원성두, 오송인, 박선희, 이민규 (2015). 목표중심 자기조절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85-802.
- 윤미설, 이동형 (2017).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8(3), 463-487.
- 윤소정, 김정섭 (2012). 한국형 Zimbardo 시간관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87-606.
- 이숙정 (2022). 성인 모색기 청년의 공통성과 이질성에 대한 다각적 이해. *방송통신연구(2022년 특집호)*, 74-100.
- 이종한, 박은아 (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중·고·대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4), 423-445.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 장희순 (2020).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3), 307-332.
- 정은교, 안도희 (2018).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 대한 진로통제소재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6(4), 133-152.
- 진예민, 김다혜, 양수진 (2021).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그릿-열정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집단별 심리특성 및 진로적응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2), 167-189.
- 차란희, 노안영 (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

-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25-1345.
- 최서경, 탁진선, 양수진 (2019). 대학생의 자율성 욕구와 우울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3), 245-265.
- 최은경, 임정하 (2022). 성인진입기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유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3(2), 163-182.
- 통계청 (2021).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22a).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2022b).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에 대한 적절한 시기. 청년삶실태조사.
- Aquilino, W. S. (2006). Family relationships and support systems in emerging adulthood. In J. J. Arnett & J. Tanner (Eds.),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The lives and contexts of emerging adults* (pp. 193-21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3).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emerging adults in American ethnic groups. *New Directions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0, 63-75.
- Arnett J. J. (200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2), 289-296.
- Arnett J. J. (2015). The cultural psychology of emerging adulthood. In L. A. Jensen (Ed.), *Oxford handbook of human development and cultur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16). *Human development: A cultural approach*(2nd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 Arnett J. J., & Schwab, J. (2012). *The Clark University Poll of Established Adults: Thriving, struggling, and hopeful*.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 Arnett J. J., & Schwab, J. (2013). *Parents and their grown kids: Harmony, support, and (occasional) conflict*.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 Arnett, J. J., Žukauskienė, R., & Sugimura, K. (2014). The new life stage of emerging adulthood at ages 18-29 year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The Lancet Psychiatry*, 1(7), 569-576.
- Baggio, S., Iglesias, K., Studer, J., & Gmel, G. (2014). An 8-item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 among young Swiss men.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38(2), 246-254.
- Beavers, A. S., Lounsbury, J. W., Richards, J. K., Huck, S. W., Skolits, G. J., & Esquivel, S. L. (2013).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educational research.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8(1), 6.
- Benetsky, M. J., Burd, C. A., & Rapino, M. A. (2015). *Young adult migration, 2007-09, 2010-12*.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 Bleidorn W., & Schwaba, T. (2017). Personality development in emerging adulthood. In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pp.39-51). Academic Press.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Côté, J. E. (2014). The dangerous myth of emerging adulthood: An evidence-based critique of a flawed developmental theory.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8*(4), 177-188.
- Crocetti, E., Tagliabue, S., Sugimura, K., Nelson, L. J., Takahashi, A., Niwa, T., Sugiura, Y., & Jinno, M. (2015). Perceptions of emerging adulthood: A study with Itali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workers. *Emerging Adulthood, 3*(4), 229-243.
- Cross, S., & Markus, H. (1991). Possible selves across the life span. *Human Development, 34*(4), 230-255.
- Damon, W., & Hart, D. (1982).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4), 841-864.
- Damon, W., & Hart, D. (1988). *Self-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Norton.
- Fingerman, K. L., & Yahirun, J. J. (2015). Family relationships. In J. J. Arnett (Ed.), *Oxford Handbook of Emerging Adult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ill, J. M., Lalji, M., van Rossum, G., van der Geest, V. R., & Blokland, A. A. (2015). Experiencing emerging adulthood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1035-1056.
- Kaiser, H.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667-683.
- Kaiser, H.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 Keyes, C. L. M. (2003). Complete mental health: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293-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Keyes, C. L. M., Wissing, M., Potgieter, J., Temane, M., Kruger, A., & van Rooy, S.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 in Swetsana-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5*(3), 181-192.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 546-572.
- Kuang, J., Zhong, J., Yang, P., Bai, X., Liang, Y., Cheval, B., Herold, F., Wei, G., Taylor, A., Zhang, J., Chen, C., Sun, J., Zou, L., & Arnett, J. J. (2023).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ventory of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23*(1),

- 1-16.
- Leontopoulou, S., Mavridis, D., & Giotsa, A. (2016).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Greek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 University student perceptions of developmental feature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3*(4), 226-244.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Marshall, G. N., & Lang, E. L. (1990). Optimism, self-mastery, and symptoms of depression in women profession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32-139.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Peterson, B. E., Pratt, M. W., Olsen, J. R., & Alisat, S. (2016).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hood: Longitudinal analysis using standardized scales, observer ratings, and content coding of the life story. *Journal of personality, 84*(2), 225-236.
- Reed-Fitzke, K. (2020). The role of self-concepts in emerging adult depression: A systematic research synthesi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7*(1), 36-48.
- Reifman, A. (2023). http://www.webpages.ttu.edu/areifman/IDEA_instrument.htm
- Reifman, A., Arnett, J. J., & Colwell, M. J. (2007). Emerging adulthood: Theory, assess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2*(1). 37-48.
- Reifman, A., & Lacey, R. S. (2000). *Age differences in propensity to consider future consequences: A focus on adolescence*. Unpublished manuscript, Paper presented at the 8th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Chicago.
- Rocchi, M., Pelletier, L., Cheung, S., Baxter, D., & Beaudry, S. (2017). Assessing need-supportive and need-thwarting interpersonal behaviours: The Interpersonal Behaviours Questionnaire (IBQ).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423-433.
- Shulman, S., & Nurmi, J. E. (2010). Understanding emerging adulthood from a goal-setting perspective. In S. Shulman & J.-E. Nurmi (Eds.), *The role of goals in navigating individual lives during emerging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30*, 1-11.
- Skaletz, C., & Seiffge-Krenke, I. (2010). Models of developmental regulation in emerging adulthood and links to symptomatology. In S. Shulman & J.-E. Nurmi (Eds.), *The role of goals in navigating individual lives during emerging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30*, 71-82.
- Smith-Adcock, S., & Tucker, C. (Eds.). (2023). *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Connecting theory, development, and diversity*. SAGE Publications.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 Soper, D. S. (2023). *A-priori Sample Size Calculator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ftware)*. <https://www.danielsoper.com/statcalc>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Westland, J. C. (2010). Lower bounds on sample size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9(6), 476-487.
-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원 고 접 수 일 : 2024. 01.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3. 08

게 재 결 정 일 : 2024. 04. 19

Validation of the Korean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K-IDEA)

Dae-hi Kim

Jeonju University / Ph.D Candidate

Myung-shig Kim

Jeonju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validated the Korean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K-IDEA) by translating it and assessing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500 participants (148 males and 352 females) aged 18-29.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300 participants, resulting in five factors: Identity Exploration/Possibilities, Negativity/Instability, Other-Focus, Self-Focus, Feeling In-Between, all of which demonstrated appropriate construc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Seco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200 participants, indicating adequate convergent validity for factor-items and discriminant validity among the factors. Third, concurrent validity was verified through correlations of the K-IDEA with goal-focused self-regulation, mental well-being, belief in a just world, and interpersonal behavior scale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K-IDEA i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identity exploration/possibilities, negativity/instability, other-focus, self-focus, feeling in-between*

부록: 한국판 성인진입기 척도

당신의 인생에서 요즘은 어떤 시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기란 현재와 지나간 과거의 몇 년간을 의미하며 예상되는 몇 년간의 미래를 포함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를 중심으로 대략 5년의 앞뒤 기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래 제시된 각 문장에서 당신이 요즘 겪는 시기에 관한 설명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 시기가 “탐색하는 시간이다”라는 구절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해당 설명의 “어느 정도 동의한다”에 표시하면 됩니다.

설명당 한 곳에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의 삶에서 이 시기는	매우 동의하지		매우 동의한다	
	않는다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새롭게 도전해보는 시간이다.	1	2	3	4
여러 선택이 가능한 시간이다.	1	2	3	4
많은 것이 가능한 시간이다.	1	2	3	4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다.	1	2	3	4
나 자신을 정의하는 시간이다.	1	2	3	4
탐색하는 시간이다.	1	2	3	4
나의 고유한 신념과 가치를 설정하는 시간이다.	1	2	3	4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시간이다.	1	2	3	4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다.	1	2	3	4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1	2	3	4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1	2	3	4
큰 압박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1	2	3	4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다.	1	2	3	4
걱정이 많은 시간이다.	1	2	3	4
불안정한 시간이다.	1	2	3	4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다.	1	2	3	4
혼란스러운 시간이다.	1	2	3	4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1	2	3	4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시기이다.	1	2	3	4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1	2	3	4
정착하는 시간이다.	1	2	3	4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간이다.	1	2	3	4
나 자신을 책임지는 시간이다.	1	2	3	4
독립의 시간이다.	1	2	3	4
완전히 성인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이다.	1	2	3	4
성인이라 느껴지기도 아니기도 한 시간이다.	1	2	3	4
점차 성인이 되어가는 시간이다.	1	2	3	4